

신종 코로나 여파로 혈액 수급 '빨간불'

1년 전 대비 2월초 광주 헌혈자 4592명→3705명 단체헌혈 취소 잇따라...혈액원 3일치 보유 그쳐

각급 학교 방학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확산하면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오후 5시 광주 헌혈의 집 총장로센터에서 헌혈을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5명 정도에 불과했다.

총장로센터는 평소 헌혈 참여자들이 붐볐지만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이곳 역시 헌혈 참여 인원이 크게 줄었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평소 총장로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헌혈 참여 숫자가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혈액원은 통상 5일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2월 3~7일 대한적십자사의 전체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을 웃돌았지만 올해 2월 3~7일은 3일분 안팎에 그치고 있다.

2월 1일부터 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헌혈 참여 인원은 3705명으로 지난해 4592명에 비해 887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설 연휴부터 단체헌혈 취소도 많아졌을뿐더러 개인 헌혈자 방문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혈액 공급량은 당연히 줄었고 병원에서도 응급환자 위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 환자나 만성적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수술은 지연되고 있다.

혈액원 관계자는 "혈액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급기야 혈액원은 등록헌혈자 약 정단체에게 헌혈 참여 요청을 확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군부대에 헌혈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동구 헌혈의 집 총장로센터의 모습.

또 적십자인(직원과 가족, RCY, 봉사회 등)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헌혈 동참 호소문과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총장로센터에서 헌혈을 하고 나온 김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왔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헌혈했다"고 말했다.

최모씨(24·여)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도 점차 줄어드는 것 같고 확진자 중 퇴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심하고 헌혈하러 왔다"며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광주시, '신종 코로나' 직격탄 골목상권 살리기 총력전

구내식당 운영 중단·일회용품 사용 한시 허용

이용섭 시장 "민생경제 살릴 대책 강구" 지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오후 광주 남구 지석동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슈퍼마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환자가 지난달 25일 3분 기량 머물렀던 곳으로, 지난 5일 오후 방역작업이 이뤄졌다. 점주는 지난 6~8일 슈퍼마켓을 자진 폐쇄한 뒤 9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지역 경제 전반의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구내식당 운영 잠정중단, 화웨이꽃 사주기 운동, 1회용품 한시 허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도소매 판매, 숙박, 음식업, 유통 등 서비스 업종에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돼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하루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시청 주변 식당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일대 식당은 물론 커피숍 등의 이용이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졸업식, 각종 모임 취소 등으로 화웨이꽃과 상가, 판매업소

가 매출 부진에 빠짐에 따라 이들을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도 전개한다.

광주원에농협 화웨이꽃판매장과 함께 12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기념일에는 시청 1층에서 시청직원 및 관내 유관기관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가족 사랑의 날 '꽃 한송이 사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무실 꽃 생활화 및 개인 꽃병 사주기 운동도 벌인다.

화웨이꽃 활성화 및 매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6일 5개 자치구 2만2000여개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했다. 이는 고객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업소에서 사용하는 용기의 재사용을 꺼리면서 업소이용 기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상생카드 10% 할인을 2월 이후에도 지속하는 한편, 경제 관련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안 내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동구,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추진

광주 동구가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와 지붕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6천7백만 원 증액된 1억7천만 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36동,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5동, 지붕개량 10동 등이다.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광주 서구는 지난 10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발전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신규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2020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 심의에 이어 구정 발전방안에 대해 지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 안전으로 상정한 '미세 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과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공약사항에 대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일부 변경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남구, 민간 위탁 작은도서관 서비스 품질 UP

광주 남구는 민간 위탁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내 작은도서관 8곳을 대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관내 민간 위탁 작은도서관은 양지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방림2동 작은도서관, 진월 작은도서관, 남구 실버 작은도서관, 방정골 어린이 작은 도서관,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양림동 역사문화 작은도서관, 노대장수 작은도서관 등 총 8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협동조합, 재단법인, 교회 등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남구는 민간 위탁 작은도서관이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 제이홉 팬들 복구에 후원품 기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정호석)의 팬들이 다가오는 제이홉의 생일(2월 18일)을 맞아 선물을 펼쳤다.

11일 광주 복구에 따르면 제이홉의 팬 커뮤니티인 '흙은더월드 제이홉 팬베이스'와 '최애돌 제이홉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최근 진행된 모금을 통해 제이홉의 이름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 328만 원 상당) 1640매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품 기탁은 지난해 '최애돌 제이홉 커뮤니티' 회원들이 기탁한 백미 128포에 이어 2년째다.

광산구, 격리 현장 있는 운남동서 보고회

광주 광산구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일제방역에 들어간 운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이동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구청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을 벗어나 격리가 이뤄지고 있는 방역의 최일선, 21세기병원인 있는 등에서, 시민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

김삼호 광산구청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8일부터 매일 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양현 주민자치회장 등 운남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아예노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연도 | 고소득층 | 중위 | 3분위 | 2분위 | 저소득층 | 하위 |
|-------|----------|----------|---------|---------|---------|---------|
| 2011년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11,111원 |
| 2016년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11,111원 |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